ECONOMIC FOCUS

2026. 1. 2

Global Macro Team

정성태 Senior Economist
sungtai.chung @samsung.com

금종호 Economist
jongho.keum@samsung.com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한국 12월 수출

당사 예상 상회; '26년 한국 수출 전망 13.5%로 상향

- 12월 한국 수출은 당사 및 시장 예상 상회. 40%를 상회한 반도체 수출 호조에 기인. 반면, 나머지 주요 품목은 관세 영향, 경쟁 심화 등으로 대체로 부진을 지속
- '26년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50%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며, 그에 따라 '26년 한국 수출 증가율 전망을 기존의 9.5%에서 13.5%로 상향 조정

'25년 12월 한국 수출은 전년 대비 13.4% 증가한 695.7억 달러로 당사 전망(8.3%)과 시장 예상(8.5%, Bloomberg 기준, 이하 전년 대비)을 상회했다. 아울러, 일평균 수출은 8.6%를 기록하며, 지난 9월 이후 8%대의 견고한 증가율을 지속했다. 12월 한국 수출 증가율이 당사 예상을 상회한 이유는 무엇보다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단가 상승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9월 21.9% → 10월 25.2% → 11월 38.6% → 12월 43.2%). 현재 추세를 지속할 경우, '26년 한국의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50%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에 따라 당사는 '26년 한국 수출 전망을 기존의 9.5%에서 13.5%로 상향한다(상반기 15.0%, 하반기 12.0%). 다만, 반도체를 제외한 주요 품목은 대체로 부진을 지속할 전망이다.

12월 한국 수출의 세 가지 특징

첫째, 반도체 수출(43.2%)은 꾸준한 HBM 수요와 DDR4 등 범용 반도체의 가격 상승에 힘입어 지난 4개월간 증가율이 가파르게 확대되었다. 대체로 반도체 수출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9~10월을 정점으로 둔화되는데, 11월에 이어 12월에도 증가율이 오히려 확대되어 '26년에도 반도체 수출의 확장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26년 높은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대부분 물량보다는 단가 상승에서 비롯되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둘째, 철강(-10.7%), 석유화학(-8.6%), 일반기계(-2.0%), 자동차(-1.5%) 등은 부진을 지속했다. 중국과의 가격경쟁 심화, 미국의 고관세정책 등 불리한 대외여건이 이어진 탓이다. 반면, 화장품(22.3%), 바이오 헬스(22.4%) 등은 개별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25년 연간 수출은 각각 12.3%와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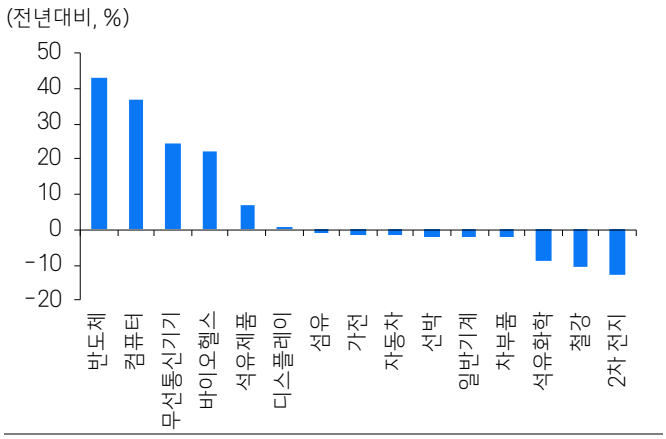
셋째, 지역별 수출에서는 아세안(27.6%), 중동(25.5%), 중국(10.1%), 미국(3.8%) 등 대부분이 양호했다. 다만, 지역별 수출에서도 반도체와 컴퓨터(주로 SSD)를 제외할 경우 한국 수출은 대체로 부진했다. 일례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은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소폭 (-)로 추정되며, 이러한 현상은 아세안, 유럽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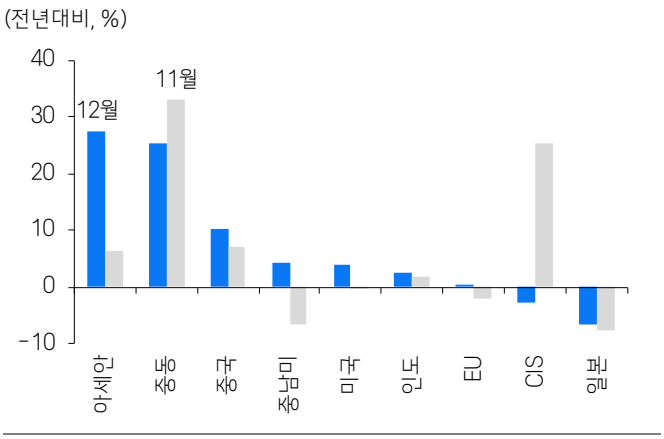
삼성증권

12월 품목별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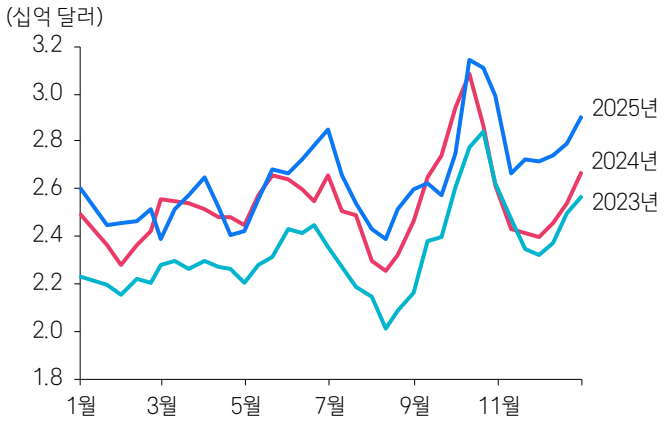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삼성증권

12월 지역별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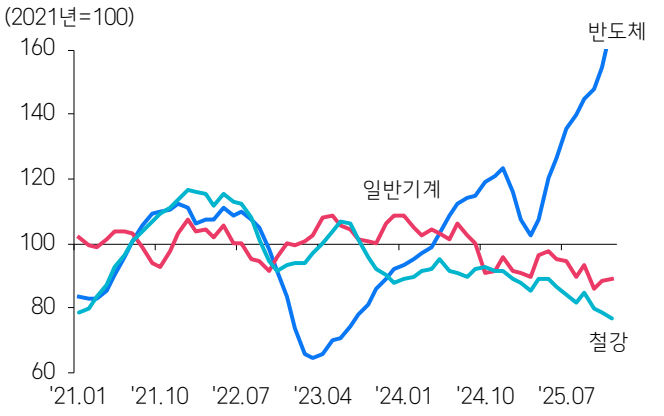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삼성증권

일평균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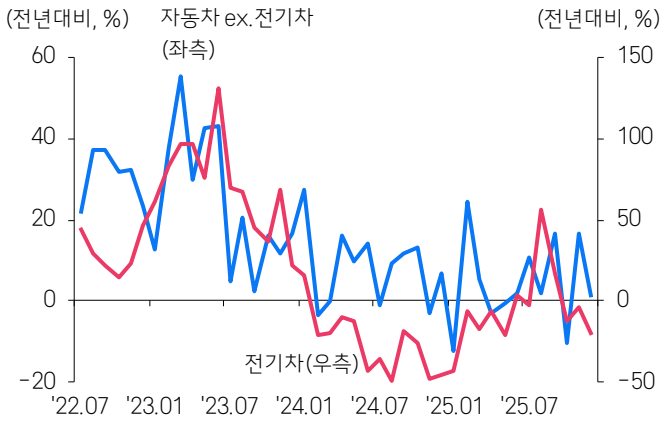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삼성증권

반도체 외 대부분 품목들은 부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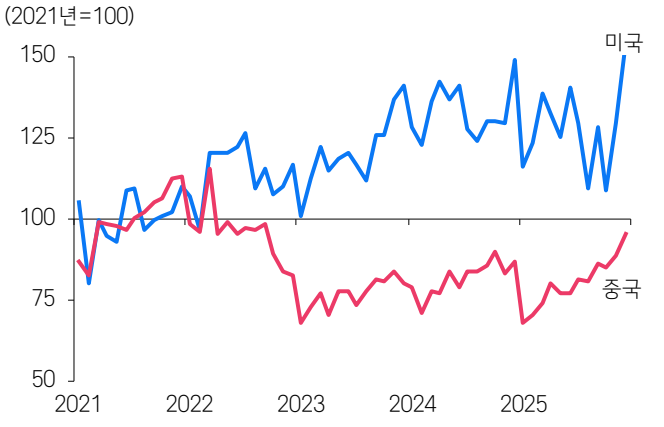
참고: 3개월 이동평균
자료: 산업통산자원부, 삼성증권

하이브리드 수출 호조로 전기차를 제외한 자동차 수출 증가



자료: 산업통산자원부, 삼성증권

중국 및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



자료: 산업통산자원부, 삼성증권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